

개성체의 사랑

작성일 : 2009. 12. 21 (월) 오전 8:01~8:10

작성자 : 김효정 (서울 석계 기쁨의 교회, 평화의료선교부)

생명의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불변한 것이 본질이다.

내 사랑은 창조주의 사랑이기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너를 향한 내 마음은

천지가 없어진다고 해도 변하지 않고 더욱 더 사랑한다.

이것이 신의 사랑인 것이다.

인생들은 사랑을 잃어버린 부모의 유전 따라 태어났기에
참사랑의 힘과 본성을 모른다.

사랑은 변하면 사랑이 아닌 것이다.

사랑은 지구가 영원하게끔 하는 창조의 힘이다.

위대한 에너지이다.

개성체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여라.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너의 사랑이 있어야 할 그 사랑의 분량에서 완전해야 한다.

네 자리를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너와 함께 했던 모든 시간의 고유한 가치를

상실하면 안 된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나는 너의 존재가 절실하다.

사랑한다.